

전북 삼례출신 독립운동가 金春培의 생애와 독립운동*

김주용**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북청권총의거’와 그 의의 |
| 2. 가계와 유년시절, 그리고 삼례 | 6. 맺음말 |
| 3. 만주망명과 북간도 생활세계 | 참고문헌 |
| 4. 정의부 가입과 군자금 모금 | <Abstract> |

국문초록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 출신 독립운동가 김춘배는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1934년 그가 실행한 이른바 ‘북청 권총 의거’는 그해 『동아일보』에서 ‘올해의 10대 뉴스’로 선정된 특별한 독립운동이었다. 이 글은 김춘배의 생애를 가족 이주사(디아스포라)와 독립운동 참여기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김춘배의 독립운동 참여는 가족사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를 가문으로서 국내에서의 생활을 뒤로 하고 새로운 이주공동체를 계획하면서 만주지역으로 이주하였다. 민족교육을 강하게 받은 김춘배는 정의부에서 군자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다가 제국 일본 경찰에 피체되어 5년간 감옥에서 생활하였다. 이후 좌절하지 않고 재차 ‘북청경찰서 무기고 탈취 의거’를 단행하였다. 김춘배의 체포와 재판과정에서 조선총독부는 독립운동가의 정당한 행위를 파렴치한 행위로 몰고 가기 위해 여론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욕적인 일제의 태도에도 굴하지 않은 김춘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

* 이 글은 2023년 11월 30일 김춘배의사 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는 ‘독립운동가 김춘배 의사 논문발표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하였음.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부교수, E-mail: kimsu8590@wku.ac.kr

립운동가를 역사의 수면위로 소환하는 작은 작업의 밑일이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 김춘배, 북간도, 정의부, 군자금 모금, ‘북청권총의거’

1. 머리말

때는 바야흐로 늦은 가을이 짙어가는 시월 어느 날 밤이다. 만물이 침묵 속에 고요히 잠겨 있는 정밤중 열두시 경이었다. 함경남도 신북청역에서 약 삼십리 가량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포구가 있으니 이 동리의 이름이 신창이라고 하는 곳이다. 이 신창이라는 곳에는 인가를 약 천 여 호나 가지고 있는 만큼 학교가 있고 면소가 있고, 또 경찰관 주재소가 있는 있는데 이날 밤 이 주재소에 뜻하지 아니 한 괴변이 생기었는데 누구든지 이 소문을 듣는 다면 참으로 의외라고 생각지 아니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¹⁾

이원규가 쓴 『暗夜의 총소리』 첫 페이지 글이다. 이원규는 이 책이 일반 경찰관 제현들에게 바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동시에 장래 ‘범인’ 수색상 참고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 작성했다고 강조했다.²⁾ 바로 김춘배의 ‘북청권총의거’를 다룬 실화 소설이다. 김춘배의 ‘북청권총의거’는 1934년 『동아일보』에서 국내외 10대 사건을 선정하였을 때 그 가운데 하나로 기록된 역사적 사건이었다.³⁾

1) 李元珪, 『暗夜의 총소리』, 大成書林, 1934, 1쪽.

2) 이원규의 정확한 활동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새벗』 소년세계사의 주간으로 활동하였으며, 1920년대 후반부터 1931년까지 童話를 보급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한 이력도 있다(『매일신보』 1931년 8월 22일). 해방 후 1954년에는 世昌書館에서 소설 『수난의 여인』을 출간하였다(『동아일보』 1954년 11월 21일). 동화작가로 활동했던 이원규가 『暗夜의 총소리』를 저술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출판업계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개연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가 김춘배 의거를 실화로서 다루고 있으며, 경찰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을 보면 1932년 만주국 성립 이후 활동의 방향성을 달리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 글에서 자료로 활용한 『경무회보』 역시 제국주의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김춘배 의거와 그의 형 김성배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묘사로 일관되어 있다. 『괴도 김춘배』라는 글을 경무회보에 쓴 加藤伯嶺은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경무회보』에만 58건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 가운데 장작림에 관한 글처럼 국제적인 문제에 관한 글, 경찰관에게 필요한 글 등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료 인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金春培는 1906년 전북 완주 삼례에서 金昌彦의 차남으로 출생하였다. 金相培, 金尙培, 金吉同, 鄭春山, 韓仲海라는 이명으로도 활동하였다. 그는 8세부터 12세까지 향리의 사립 영신학교를 다녔다. 제국 일본의 지배정책으로 그의 집안에서는 망명을 결정하였다. 그 정확한 배경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았지만 1918년경 온 가족이 북간도 연길현으로 이주하였다. 그는 천보산 신흥학교를 다녔으며, 이곳에서 민족적 자각과 독립운동의 의지를 다졌다. 그는 19세 때부터 정의부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군자금 모금에 집중하였다.⁴⁾ 1927년 2월경 남만주를 주 근거지로 활동했던 정의부에 가담하여 권총 2정과 실탄 17발로 무장한 뒤 여섯 차례에 걸쳐 자산가를 찾아가 무장 항일운동을 위한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간도에 주재하고 있던 천보산 일본 영사분관 소속의 영사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청진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언도받고 청진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28년 7월 탈출을 시도하여 성공하였으나 재차 붙잡혀 가중처벌로 징역 1년 10개월을 받아 모두 7년의 옥고를 치르고 1934년 5월에 출옥하였다.⁵⁾

김춘배는 출옥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1934년 10월 2일 함경북도 북청군 신창면 신창 경찰주재소를 습격하여 권총 2정과 탄환 600발 및 장총 6정 등을 탈취하였다. 그는 조선총독부 경찰의 추격에도 19일간 ‘신출귀몰’한 활동을 펼치다가 10월 20일 신창역에서 경성역으로 가기 위해 기차를 타고 가다 체포되었다.⁶⁾ 이때 김춘배를 체포하기 위해 동원된 경찰 수가 수백 명에 달했으며, 조선총독부 경찰서에서도 ‘전대미문’ 사건이라고 할 정도였다.⁷⁾ 그는 함흥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어 검사의 취조를 받고 공판에 회부되었다. 그는 공판과정에서 군자금 3만원을 모금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하였다.⁸⁾ 그는 1934년 11월 26일 함흥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다.⁹⁾ 함경북도 함흥 감옥에서 1935년 1월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었으며,¹⁰⁾ 다시 경성감옥에서 수감 생

3) 김춘배의 ‘북청권총의거’와 군자금 사건은 만주제국 성립, 히틀러 대통령 취임, 보성전문대학 교사 안암동 이전 등과 함께 동아일보가 1934년 선정한 10대 사건으로 기록되었다(『동아일보』 1935년 4월 26일).

4) 『부산일보』 1934년 11월 14일, 『희대의 총기탈취 범인 金春培, 그가 범죄의 아들로 전략한 경로 ; 아버지는 기독교의 독신가, 16세에 민족사상의 세례』

5) 『조선일보』, 1934. 10. 22

6) 『동아일보』 1934년 11월 17일, 『권총사건 김춘배 19일, 공판 개정』

7) 『부산일보』 1934년 11월 29일, 『조선의 鬼態 무기징역, 金春培에게 판결』

8) 『동아일보』 1934년 11월 20일, 『군자금3만원모집』.

9) 『동아일보』 1934년 11월 27일, 『김춘배에게 무기언도』.

10) 『동아일보』 1935년 1월 19일, 『총기사건 김춘배 공소를 취하』.

할 중 광복을 3년 남겨두고 순국하였다.

독립운동가 김춘배에 대한 역사적 기초 사실 조차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¹¹⁾ 인터넷 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춘배」 항목에도 여전히 출생 연도는 1904년, 출생지는 함북 경흥으로 기록되어 있다.¹²⁾ 뿐만 아니라 그가 무기징역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해방 때까지 수형생활을 하였다고 언급한 연구도 있다.¹³⁾

김춘배의 함남 권총 의거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석사학위 논문만 나와 있을 뿐이다.¹⁴⁾ 이 연구에서는 김춘배의 일생 가운데 함남 권총 의거에 초점을 두었다. 자료의 한계라고 할 수 있지만 30명 가까운 대가족이 망명을 단행한 이유와 실상이 너무 소략하고 북간도 생활세계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의부 군자금 모금의 성격 및 그 대상 분석도 미흡하다. 특히 김춘배 의사의 ‘북청권총의거’의 실체와 왜 조선총독부가 이 사건에 집착하였는지에 대한 분석도 조금 미흡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춘배의 생애사¹⁵⁾와 그 가운데 만주지역으로의 이주, 즉 한인디아스포라¹⁶⁾의 관점과 정의부 활동의 특성과 연동된 함남권총사건이 지닌 역사적 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¹⁷⁾ 일본제

-
- 11) 국가보훈처 공훈록에는 김춘배의 생몰연도를 1906년~1942년으로 명확하게 변경, 기재하였다. 이는 가족들의 사실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요청과 자료 발굴로 사실을 바로잡은 예로 평가할 수 있다.
 - 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춘배」, 『전라일보』 2022년 2월 27일, 「전북 3.1절 잊혀진 독립운동가 삼례출신 김춘배 의사」.
 - 13) 황수근, 「김춘배의 군자금 모금 활동-함남권총 의거를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16쪽. 필자는 2022년 7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박경목 관장과 연락하여 김춘배 의사의 수형카드를 확인하였지만 아쉽게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는 김춘배 의사가 장기수(10년 이상)였기 때문에 서대문형무소에서 잠깐 수형생활을 한 후 마포에 소재했던 경성감옥으로 이감되어 순국 때까지인 1942년까지 수형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성감옥 수형카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14) 황수근, 「김춘배의 군자금 모금 활동-함남권총 의거를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15) 이 글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집안의 자료를 제공해주신 김춘배의 손자 김경근님께 지면으로 감사를 드린다.
 - 16) 간도 디아스포라의 원인과 실체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것은 행위주체가 자신들의 생존과 정체성 탐구에 대한 중첩된 질문이 존재하는 것인가에 있다. 제국주의 일본의 입장에서 가난하고 불만을 가진 자들이 이주하였다는 상투성이 당시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의 논조이다. 간도 디아스포라의 행위 주체들의 의식 속에는 여러 가지 가치의 충돌과 동일화의 요구가 좌절된 경험이 있다. 이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해방을 맞이했던 역사를 온전히 복원하는 길이 오늘날 중국 조선족과 해방 이후 한반도로 귀환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 17) 김춘배의 신창주제소 습격은 단독의거이면서 그가 정의부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크게 반영되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1920년대 정의부에서는 국내에 진입하면서 평안북도 접경지역 일본 주재소를 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곤 하였다. 이러한 배경이 김춘배의

국주의는 권총사건을 식민통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상징적 사건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권총사건의 주역이었던 독립운동가들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 가장 무거운 ‘중벌’을 일제로부터 받았다.¹⁸⁾ 그만큼 김춘배의 ‘북청권총의거’의 진상을 파헤쳤던 일제로서도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¹⁹⁾

이 글은 김춘배의 가계와 디아스포라의 실상을 규명하고 1920년대 군자금 모금을 진행했던 정의부원으로서의 활동상을 보다 세밀하게 복원하고 1934년 ‘북청 권총의거’의 실상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김춘배 독립지사의 개인사와 가족사를 디아스포라와 연결시키고 군자금 모금을 타 군자금 모금과 유형을 비교 정리하려고 했다. 이 글이 김춘배와 그의 가족의 디아스포라 및 독립운동사에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일정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가계와 유년시절, 그리고 삼례

김춘배는 1906년 2월 29일 전라북도 전주군 삼례면 삼례리 1385번지에서 부친 김창언과 모친 백봉애 사이의 차남으로 태어났다.²⁰⁾ 그의 조부 金憲植은 한의사로 활동하였으며, 부친 김창언²¹⁾은 삼례시장에서 포목상을 운영하였다. 그의 가계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거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한다.

- 18) 1930년대 초반 평남지역 권총을 사용한 대표적 군자금 모금 사례는 서원준이 대표적이다. 서원준은 1933년 평양과 평남 일대에서 권총으로 군자금을 모으면서 그 과정에서 일본 순사부장을 살해하기도 했다. 그해 6월 16일 체포되었으며, 1935년 4월 30일 평양 감옥에서 순국하였다(김빛나, 『조선혁명당 국내유격대장 서원준-노동자에게 독립군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17).
- 19) 일제는 김춘배 의거를 1930년 이천 장호원에서 일어난 김선학 의거와도 비교하였다.
- 20) 김춘배 생가는 현재 삼례 성결교회가 자리하고 있다. 2022년 7월 24일 방문시 삼례성결교회 어디에도 김춘배 생가 관련 기념물 또는 기념 표식은 없는 형편이다. 김춘배의 출생연도는 손자 김경근 목사가 제적등본을 발굴하여 1906년으로 바로잡았으며, 1934년 ‘북청권총 의거’ 때 언론에서도 그의 나이를 29세로 파악하였다(『조선일보』 1934년 10월 22일 호외).
- 21) 김춘배의 부친 김창언은 이주 후 천보산 교회 집사 및 노도구 교회 집사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다만 그가 이주 후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일본외무성 문서에 나오는 金昌彦은 대한의군부 모연대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28, 『朝鮮側 警察力朝鮮人 金順 等オ拘引セルニ關スル件』, 公 第259號, 1921년 6월 27일). 그가 1873년생이라고 한다면 1921년 48세의 나이로 모연한다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지만 이 자료만 가지고 김창언의 활동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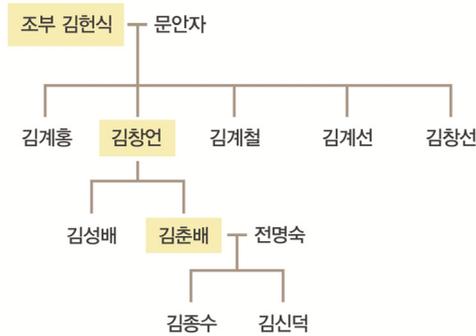


그림 1. 김춘배 가계도

김춘배의 조부 김헌식은 1903년부터 기독교에 입교하였으며, 한의사라는 직업으로 넉넉한 가정 형편을 유지할 수 있었다. 부친 김창언 역시 삼례시장에서 포목상을 운영하는 등 비교적 윤택한 생활을 영위한 것 같다. 그의 유년시절의 정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1934년 ‘권총 의거’ 이후 국내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기사는 다음과 같다.

이 동리 사람들은 모두가 김춘배의 가정이 좋았다고 한다. 그리고 친부는 5형제나 되며 희박한 가운데 모두 물질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윤택한 생활을 하였고 겸하여 예수교당까지 건축하고 신앙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²²⁾

김춘배의 가문은 누대부터 삼례지역에 거주하였는데, 이 지역은 동학농민혁명의 핵심지역이었다. 삼례는 오래 전부터 호남의 관문이며, 교통의 요충지였다.

김춘배의 집안에서 기독교를 수용한 시기는 1903년이며²³⁾ 삼례제일교회를 설립한 시기는 대략 1903년으로 잡고 있다.²⁴⁾ 김춘배의 증조부 김헌식, 백부 김계홍이 삼례제일교회 설립에 선구자였다. 1907년경에는 당시 전도관으로 김헌식의 사랑채를 활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춘배의 부친 김창언의 객실은 교

22) 『조선일보』, 1934년 10월 25일, 「유시부터 성격이 완강」.

23) 삼례제일교회, 『삼례교회사』, 3쪽. 삼례지방에도 비로소 전도를 받게 되어 선교사 마로 덕씨와 전도사 최대진 두 명의 열심 전도로 교회가 시작되었도다. 1903년 처음 신자로는 장경태, 김계홍, 정창신, 김헌식 외 10여 인이 처음 모여 예배케 되니 삼례교회 기초가 되었도다.

24) 삼례제일교회, 『삼례교회사』, 6쪽

회 사숙으로 활용되었으며, 그는 사숙의 재정을 담당하였다.²⁵⁾ 그리고 김춘배가 다녔던 곳으로 알려진 영신학교가 1909년 8월 31일 설립되었으며, 교장은 김재중, 교감 김계철, 회계 김창언이었으며, 학생 수는 20여 명이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김춘배는 유년시절부터 유복하게 성장하였으며, 사립학교인 永新학교 4학년까지 다녔다. 김춘배는 어려서부터 성질이 강직하고 쾌활하여 한번 무엇을 한다고 하면 쉽게 그 목적을 버리지 않고 관철시키는 유형의 인물이었다. 김춘배를 교육시켰던 영신학교 교장 김재중은 다음과 같이 김춘배를 기억하였다.

물론 어려서부터 춘배의 성격은 대강 짐작은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무도 성격이 팔팔하고 강직한데다가 무슨 사물을 접하게 되면 모두 감정적으로 과격할 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아동을 훈련할 때에 각별히 춘배를 주목하여 훈련하였습니다. 엄청난 행동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²⁶⁾

위와 같은 기사들이 대부분 당시 김춘배의 유년시절을 묘사하는데 정형화된 것 같다. 독립운동을 감정적 행동으로 치부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 어찌되었건 김춘배는 유년시절을 삼례에서 보내고 그의 나이 13살에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떠나게 되었다. 삼례 김춘배 가문의 디아스포라에 어린 김춘배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된 것이다.

3. 만주망명과 북간도 생활세계

김춘배 가문이 북간도로 이주했던 1918년 시기는 일본제국주의가 세계1차 대전에서 승전하고 만주지역에 본격적으로 조선인 민회를 설립했던 때였다. 동양척식회사(이하 동척)이 간도에 출장소를 설치한 것은 1918년 경이다. 동척은 간도에 진출하면서 間島救濟會의 기존 업무를 인수하였다.²⁷⁾ 동척이 독자적인 업무를 추진하기에 앞서 기존의 간도구제회의 업무를 인수한 것은 사업

25) 삼례제일교회, 위와 같음.

26) 『조선일보』, 1934년 10월 25일, 「유시부터 성격이 완강」.

27) 구제회 업무를 인수한 동척의 초기 자산은 약 6만 7천여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토지평가액은 약 3만 5천원이었다(『間島關係(開放及調査)』 1, 337쪽).

성격이 유사하였기 때문이다. 간도구제회의 업무 역시 표면적으로는 구제자금의 대부에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간도에서의 토지획득에 있었다.

김춘배 가문의 북간도 이주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²⁸⁾ 김춘배 일가의 간도 이주는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경술국치 이후 삼례지역 이토 농장의 무자비한 수탈에서 벗어나기 위해,²⁹⁾ 그것은 당시 현실에 바탕을 둔 추측일 수도 있다.³⁰⁾ 하지만 김춘배 가문의 디아스포라의 원인과 배경을 경제적인 궁핍상으로 단정하는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김춘배 가문처럼 북간도로 이주할 때 수십 명의 인원이 움직인 예는 주로 독립운동을 위한 망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³¹⁾

김춘배 가문은 1918년 경 북간도로 이주하여 延吉縣 尙義鄉 광암동에 정착하였다.³²⁾ 당시 연결현 상의향 광암동은 오늘날 용정시 노도구와 천보산 부근으로 추정된다.³³⁾ 이 때 김춘배 가문뿐만 아니라 삼례제일교회 관련 인사들도 디아스포라에 동참하였다. 이에 대해 삼례제일교회사의 일부분을 살펴보자

1918년 2월 24일에 본 교회에서 김계홍 장로의 5형제 권속 30여 명과 李昌玉 집사와 潘基春 씨와 朴大必 씨 등 전 가족 50여 인이 중국 동북지방인 길림성 연결현으로 이거케 되니 교회는 거의 떠나가는 셈이 되었다. 기중 입교인만이 29인인 고로 교회는 영산한 중에 지내었다.³⁴⁾

-
- 28) 안동 출신 석주 이상룡 가문의 경우 그가 남긴 『석주유고』와 그의 처남 백하 김대락이 남긴 『백하일기』에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안동인의 만주 디아스포라’의 실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춘배 일가의 자료나 일지, 일기 등이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아 이주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 29) 기존 연구에서는 삼례지역에 설치된 이토 농장의 수탈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명확한 자료 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쉽게 예단할 수 없다.
- 30) 신문기사의 내용과 실제 발생했던 이주 시기의 간극이 17년이나 차이가 난다.
- 31) 석주 이상룡과 김대락 가문의 예도 이 범주에 속한다(장세운, 『1910년대 남만주 독립군 기지 건설과 신흥무관학교-안동유림의 남만주 이주와 이상룡-김동삼의 활동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24, 2017 참조). 또한 신흥무관학교 건립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충남 천안 목천면의 이장녕 가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김주용, 『이장녕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8, 2014 참조).
- 32) 1922년 연결현에는 수신향, 용지향, 상의향, 상례향, 지인향, 춘양향의 6개 향으로 이루어졌다. 승의향은 천보산, 세린하 光東洞, 九戶洞, 태평구 석문, 팔도구 등의 촌이 있다. 상의향 광암동의 경우, 다른 자료에는 상의향 應岩洞으로 표기된 경우도 있다(『조선중앙일보』 1934년 10월 26일, 『북청권총사건의 진상(6)』).
- 33) 북간도 상의향 광암동에 대한 정확한 위치 비정을 위해서 각 자료를 확인하였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 34) 삼례제일교회, 『삼례교회사』, 9쪽.

위와 같이 정확하게 이주 동기는 밝히지 않아 이주 상황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교회의 핵심인사였던 김춘배 가문이 집단으로 이주하였다는 사실은 교회의 존립을 흔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 디아스포라의 목적이 교회를 설립하고 전도하기 위함인지, 독립운동을 실행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생활난으로 이주한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생활난으로 집단 이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김춘배 가문은 이미 삼례지역에서 누대 동안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 비교적 풍족한 편이었기 때문이다. 전도하기 위해서 망명하였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김춘배 가문은 북간도 교회 설립과 함께 독립운동을 펼치기 위한 중층적 사과의 실천의 장으로 북간도를 택했던 것 같다. 북간도 연길에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하는 것은 독립운동의 한 방편일 수 있다. 예컨대 명동촌에 규암 김약연이 명동교회를 설립하였다는 사실이 기독교 전도에 있다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으며,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³⁵⁾ 실질적으로 김춘배의 부친인 김창언은 북간도 이주 후에도 교회 설립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³⁶⁾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김창언의 큰형 김계홍의 행적이다. 제국주의 일본 외무성 영사관의 보고문서에는 1921년 북간도지역 한인들이 설립한 사립학교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보고서에 김계홍은 신흥학교 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³⁷⁾ 신흥학교는 1921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주소는 상의향 구호동이었다. 이 학교에서는 수신, 산술, 조선어, 이과, 한문, 미술, 성경을 교수하였다. 성경을 교수한다는 점에 일제도 이 학교가 기독교계 학교라고 판단하였다. 교사는 1명이며, 학생 수는 남학생 30명, 여학생 10명이었다. 특이한 보고사항은 이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排日的 色彩’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김춘배 가문은 기독교적 색채와 독립운동 가문으로 주변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미친 것 같다.

당시 북간도 지역에 이주 한인들의 거주지는 한반도의 출신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었다. 예컨대 용정지역은 대부분 함경도 출신들이 이주한 곳이었다. 따라서 전북 출신 김춘배 가문의 경우 많은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농촌지역이

35) 명동교회 및 명동학교는 유기적 관계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것은 이주한인 마을공동체로서의 성격을 띠었으며, 일종의 독립운동기지 역할도 수행하였다(이명화, 『북간도 명동학교의 민족주의 교육과 항일운동』, 『백산학보』 79, 2008 ; 강영택,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오산학교와 명동학교』, 『기독교교육논총』 68, 2021 참조).

36) 『가족보』 (미간행) 참조.

3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31, 間島地方 日本側 施設及朝鮮人經營 私立學校 調査ノ件(機密 第2號; 機密受第19號, 1922. 1. 7).

훨씬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것 같다. 김춘배는 그곳에서 천보산 신흥학교를 다닌 것 같다.³⁸⁾ 그리고 1920년 10월 제국주의 일본이 북간도 지역을 침략한 후 자행한 ‘간도제노사이드’의 직접 또는 간접 경험도 했을 것이다.³⁹⁾

그는 1926년경 전명숙과 결혼하였다. 슬하에 아들 종수와 딸 신덕을 두었다.⁴⁰⁾ 경제활동은 주로 포목상을 하였다고 한다.⁴¹⁾ 김춘배가 언제부터 독립운동에 참여했는지 정확하지 않다. 다만 대한인국민회 간부로부터 민족운동의 당위성에 대해 심도 있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김춘배가 결혼 후 아들이 출생하였으며, 집안의 가장으로서 특히 간도지역 디아스포라를 단행했던 그가 어떻게 정의부에 참여하였는가에 있다.⁴²⁾ 이주공동체의 정신적 리더였던 조부는 이주 후 5년 뒤인 1923년 사망하였으며,⁴³⁾ 부친은 1942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김춘배의 독립운동 참여 동기 및 배경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문과 가족의 영향력이 가장 컸을 것이며 이외에 어떠한 요소가 작용하였는지는 좀더 추적이 필요한 대목이다.

-
- 38) 황수근은 김춘배의 형인 김성배가 명동중학교에 편입했다고 했으며, 김춘배 역시 광명학교 4학년에 중도 퇴학했다고 했다(황수근, 앞의 글, 7쪽). 하지만 김춘배 가문이 거주했던 곳과 명동학교 소재는 약 20km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숙이나 자취라면 가능한 일이다. 또한 광명학교 역시 용정촌 시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현 승의향 광암동에서 통학은 어렵다. 오히려 인근 천보산 신흥학교에 다녔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신흥학교는 김춘배 가문에서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
- 39) 1920년 10월 16일부터 제국주의 일본은 조선군과 관동군을 북간도와 서간도에 침투시켜 약 2개월간의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였다. 이때 학살당한 이주 한인 숫자는 약 3,500명이다(김주용, 『1920년 간도 한인(조선인) 제노사이드에 동원된 한인경찰-순용, 협치, 제국의 대변자』, 『지방사와 지방문화』 24-2, 2021). 김춘배 가문이 정착했던 상의향 일대도 일본군의 침탈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이때 피해를 본 김춘배 가문의 구성원이 있었는지도 추후 검토할 사항이라 보여진다.
- 40) 『동아일보』 기사에는 부인이 전명숙이 아닌 김명숙으로 표기하였다. 오류이다. 아들 明洙로 적시하였다. 이는 오류이다. 아들 이름은 鍾洙이다(1934년 8세, 『동아일보』, 1934년 10월 22일).
- 41) 『조선일보』 1934년 10월 22일 호외.
- 42) 1920년대 북간도 지역에는 일본제국주의에 영향을 크게 받았던 ‘조선인민회’가 활동했다. 김춘배 가문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회활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들이 정착했던 천보산에도 민회가 성립되었다. 물론 민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 친일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 리더들은 대부분 친일의 길을 걸었다(김태국, 『만주지역 조선인민회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01, 참조). 뿐만 아니라 이주 한인들은 중국 지방 당국의 귀화입적을 강요받기도 했다. 어쩌면 이중압박 속에서 이주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 43) 『김춘배 제적등본』 참조.

4. 정의부 가입과 군자금 모금

1920년 10월 제국주의 일본 군대는 북간도, 서간도 지역의 한인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학살’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른바 1920년 간도한인 제노사이드가 그것이다.⁴⁴⁾ 한국독립운동세력은 일제의 만행에도 굴하지 않고 1922년 8월 만주 지역 독립운동단체들의 통합체로서 대한통의부를 결성하였다.⁴⁵⁾ 하지만 대한통의부 내부의 문제 즉 공화파와 북벽파의 대립과 갈등으로 의군부가 분리되어 성립되었다. 1923년 8월에는 참의부가 성립되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직할단체로서 명칭도 ‘주만참의부’였다.⁴⁶⁾

이 같은 상황 속에서 1924년 7월 10일 길림에서 대한통의부 대표 김동삼 등을 비롯한 남만 각 단체들이 모여 전만통일의회준비회가 개최되었으며, 그해 11월 새롭게 통합된 독립운동단체인 정의부가 성립되었다.⁴⁷⁾ 의장은 김동삼이 선출되었다. 관할지역은 남북 만주의 광대한 지역으로 하얼빈 이남 신빈 서쪽 지역, 북간도이며, 치안유지를 위해 무장대가 조직되었다. 정의부에서는 재만 한인사회에 소득세를 부과하여 재정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중앙행정위원과 분과위원을 선출하고 자치, 군사, 교육, 재정, 생계 등의 집행부서를 설치하였다.⁴⁸⁾

김춘배는 정의부의 활동 가운데 경제활동, 자치문제, 교육기관 운영 문제 등 보다는 군자금 모금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다. 정의부의 군자금 모금 활동은 국내와 만주지역에서 전개되었다. 각종 언론에 정의부의 국내 군자금 모금 활동을 조직의 존립 기간 동안 수십 차례 등장하였다. 만주지역의 경우도 대동소이하다.⁴⁹⁾ 김춘배는 자신이 거주하였던 북간도 지역에서 군자금 모금 활

44) 일반적으로 경신참변, 간도참안, 간도참변 등으로 일컫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술적 용어들은 강한 규정력이 없다. 1948년 유엔에서 램킨이 제출한 제노사이드에 관한 협약에는 인류가 행해서는 안되는 국가, 민족 간의 절멸 행위를 강력한 반인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국주의 일본이 행한 한인에 대한 행위 역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김주용, 『1920년 간도 한인(조선인) 제노사이드에 동원된 한인 경찰 : 순응, 협치, 제국의 대변자』, 2021 참조).

45) 박길순, 『대한통의부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1990, 6쪽.

46) 참의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국독립운동을 총괄하는 총지휘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탄생되었다. 1923년 9월 경 임시정부와의 교섭을 위해 백광운, 조능식, 박응백, 김원상, 조태빈 등이 상해에 파견되었으며, 임시정부 직속 남만 군정부로 인정받게 되었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5권, 459쪽).

47) 채영국, 『정의부 성립과 중앙조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0, 1996, 43쪽

48) 박영석, 『한국독립운동의 방략과 평가』, 『한민족독립운동사』 10, 국사편찬위원회, 1991, 219쪽.

동을 주로 펼쳤다.

1926년 10월 24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개최된 정의부 중앙의회 회의에서 채택된 정의부 헌장에는 “본부는 중국령에 교거하는 조선민족으로 지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초기의 정의부 지방 조직에는 연변지역은 제외된 상태였다. 1926년 말경 정의부의 관할 지역은 길림성까지 그 외연을 확대하였다.⁵⁰⁾ 김춘배가 거주했던 연길현은 초기에는 실질적으로 정의부 지방조직 세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었다. 하지만 김춘배가 활동했던 1927년경에는 정의부의 관할 안에 연길현 지역에 포함되었다.

정의부 의용군은 만주 내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모험대 또는 암살 대라는 전투부대를 두었으며, 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모연대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정의부는 관할지역이면서 중앙본부와 거리가 떨어져 형편상 중앙에서 관할하기 어려운 북간도 지역 한인의 의무금 및 군자금 납부를 위해 이를 중간에서 처리해줄 모연대를 안도현에 조직하였다.⁵¹⁾ 특히 안도현 모연대에는 3개 대로 편성되었다. 제1모연대는 화룡현 지역, 제2모연대는 연길지역, 제3모연대는 왕청현을 관할하였다. 각 모연대는 그 지역 인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김춘배 역시 제2모연대에 소속되어 활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의부는 북간도를 관할지역에 포함시키기는 하였으나 그 영향력을 펼치기가 어려웠다.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정의부는 안도현에 모연대를 조직하고 침투시켰던 것이다.⁵²⁾

정의부에서는 조직운영에 필요한 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관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무금, 영업세, 지방비, 호별세, 호득세 등을 징수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언론을 통해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다.⁵³⁾ 정의부의 국내 군자금 모금 활동은 1925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김춘배는 1927년 2월 북간도 甕城拉子에서 정의부에 가입하고⁵⁴⁾ 두 달 뒤인 4월에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가 정의부 모연대 구성원으로 군자금 모금에 참여한 자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⁵⁵⁾

49) 황민호, 「국내언론에 나타난 재만 정의부의 대민활동과 항일무장투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2, 참조.

50) 채영국, 「정의부의 지방조직과 대민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 1995, 234쪽.

51) 채영국, 「정의부의 항일군정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2, 1998, 72쪽.

52) 채영국, 『1920년대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독립기념관, 2007, 70쪽.

53) 황민호, 「국내언론에 나타난 재만 정의부의 대민활동과 항일무장투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2, 101쪽.

54) 『매일신보』 1934년 10월 22일.

55) 『동아일보』, 1928년 1월 31일, 「정의부원 공판」.

平南 豊山郡 智德面 陽成里에 본적을 두고 중국 간도 연길현 상의향 老道溝에 거주하던 桂亨珍⁵⁶⁾은 청진지방법원에서 강도 미수죄로 징역 6년의 언도를 받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를 신청하여 지난 30일에 高木재판장으로부터 역시 6년 언도를 받았다는 데 사건의 내용을 듣건대 전기 계형진은 조선 00(독립, 필자)에 목적을 두고 정의부에 가담하여 金相培(김춘배의 이명, 필자), 金承懋와 공모하여 작년 4월 23일 오후 12경에 그곳 金承俊의 집에 침입하여 자기들은 정의부募捐隊이니 군자금을 제공하라고 러시아식 오연발 육혈포로 위협하였으나 마침 그 집에 돈이 없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라는 데 계형진은 그 때 문간에서 파수를 보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더라.⁵⁷⁾

위의 자료는 김춘배(김상배)와 김승무의 군자금 모금 활동상을 일부만 보도한 것이다. 김춘배는 1927년 4월 17일 용정촌 거주하고 있는 李熙駿이 경영하는 전당포에 진입하여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이틀 뒤 연길현 상의향에 거주하는 韓周官의 집을 방문하여 군자금 30원을 모금하였다.⁵⁸⁾ 김춘배가 실행했던 정의부 의연대의 군자금 모금 대상은 주로 부호이며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자들이다. 예컨대 이희준은 친일단체인 용정조선인회 회장을 역임했던 이희덕⁵⁹⁾과 함께 한반도 남부 이주자들의 친목 도모를 표방하면서 조직한 ‘鮮人親睦契’의 부계장이었다.⁶⁰⁾ 뿐만 아니라 김승준은 역시 친일단체 보민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자이다.⁶¹⁾ 이처럼 김춘배의 군자금 모금 대상은 명확하였다. 정의부 모연대의 군자금 모금의 기본 방침은 이주한인의 자치권 실현을 위해 의연금은 필수적이었으며, 이를 모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법

56) 「정의부원 桂亨珍, 淸津지법에서 강도미수죄로 6년(원심과 동일) 언도」.

57) 『동아일보』, 1928년 1월 31일, 「정의부원 공판」.

58) 『淸津地方法院第1審判決抄本』(京城地方法院：1927. 12. 16)

59) 친일인명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이희덕(1869~1934)은 서울출생으로 일본육군사관학교 양성소를 속성으로 마친 후 줄곧 대한제국 육군에서 복무하다가 1908년 북간도로 이주하여 시천교 교당을 건립하고 친일인사의 대표로 활동하였다. 1917년 용정조선인민회 회장에 취임한 후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며, 1922년 7월 간도에 용주사를 건립했으며, 1926년 9월 민회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1927년 한인 대상의 자금대부 회사인 간도홍업 주식회사 사장을 지냈다. 그해 6월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주임관 대우 참의에 임명되었다(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3, 248~250쪽).

6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18, 『國外情報 - 鮮人親睦契組織ノ件』(高警第14892號; 秘受 6535號, 1920년 5월 28일).

61)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保民會 3, 『保民會 功勞者及關係者 解散手當 支給ニ關スル件』(機密公 제128호, 1924년 4월 28일).

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친일단체 또는 친일성향의 이주 한인들의 존재는 정의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군자금 모연은 이들에게 더 강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정확하게 군자금 청구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

첫째 청구의 목적은 혁명운동의 기본실력을 충실함에 있음. 둘째 청구금액을 인도할 때는 파견원의 신임장 유무 및 영수증과 청구서와 契印이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진위를 판단할 것. 셋째 청구금액을 완납할 때는 영수증을 받고 본부는 그 원적을 영구히 編存하여 정열을 표창함. 넷째 만일 청구에 응하지 않고 적에게 기밀을 누출하거나 또는 파견원을 고발할 때는 律에 의하여 처분함.⁶²⁾

김춘배의 이러한 활동은 당시 간도일본총영사관 천보산 영사경찰관 분서에 포착되었으며,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김춘배 체포 이후 간도지역에서는 일본영사경찰들에게 독립군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 공급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1927년 12월, 간도총영사 사카이는 외무대신 다나카(田中)에게 한국독립군들이 모젤권총을 휴대하고 완강히 저항하고 있으니 이를 제어하기 위해 영사관 경찰들도 모젤권총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구체적으로 모젤권총 120정, 탄환 18,000발, 망원경 25개를 요구하였다.⁶³⁾

- 62)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42, 『鮮匪團正義府 內証ニ關スル件』(朝保秘 第44號; 外務省文書課受 第251號, 1926년 5월 3일). 하지만 제국주의 일본은 정의부 군자금 모금 행태를 이주 한인에 대한 협박성 활동이라고 폄훼하였다. 실제로 밀정을 시켜 이주한인사회와 독립군 세력간의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 63) 일본외무성 편, 『外務省警察史』 19, 不二出版社, 1998, 280쪽. 1928년 간도총영사관의 모젤권총 발급 정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젤권총수	모젤권총탄환수	발급시간
두도구분관	21	3,150	1928년 5월 21일
국가가분관	32	4,800	1928년 5월 21일
백초구분관	10	1,500	1928년 5월 21일
혼춘분관	23	3,450	1928년 5월 18일
대립자분서	3	450	1928년 4월 23일
남양평분서	3	450	1928년 4월 22일
동불사분서	3	450	1928년 4월 23일
천보산분서	5	750	1928년 5월 21일
합 계	100	15,000	—

* 일본외무성 편, 『外務省警察史』 23, 不二出版社, 1998, 276쪽

김춘배와 함께 군자금을 모금했던 동지 김승무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함흥 형무소에서 복역하였으며, 가출옥했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1929년 4월에 사망하였다.⁶⁴⁾ 김춘배는 청진형무소에서 복역 중 탈옥하다가 다시 체포되어 함흥형무소를 거쳐 경송감옥으로 이송되었다.⁶⁵⁾

군자금 모금을 위해 국내로 들어온 정의부원들은 모연대로 불렸으며, 정의부 의용군은 국경지방에 수풀이 무성한 기회를 틈타 평북지방 부호들에게 관련 격문을 보내고 군자금을 모집하고자 했다.⁶⁶⁾ 이처럼 정의부 모연대의 군자금 모금 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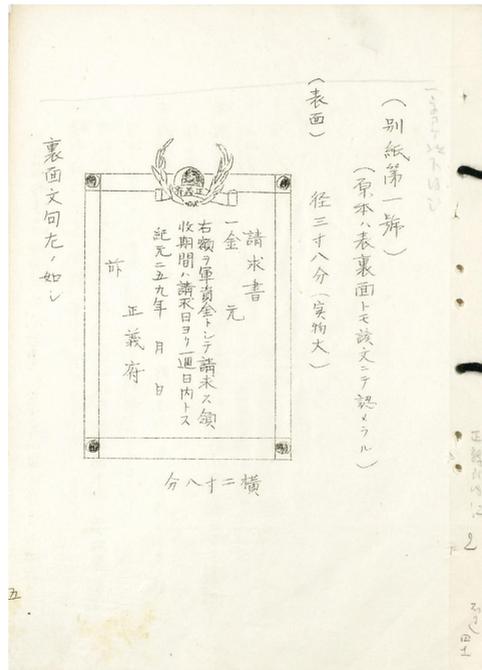


그림 2. 정의부 군자금 영수증

*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42, 『鮮匪團正義府 內証ニ關スル件』(朝保秘 第44號; 外務省文書課受 第251號, 1926년 5월 3일).

64) 假出獄執行濟之件報告(咸興刑務所: 1931. 4. 11)

65) 『조선일보』 1934년 10월 22일 호외, 「정의부원으로 직접 만주서 직접 행동」.

66) 황민호, 앞의 글, 113쪽.

5. ‘북청권총의거’와 그 의의

1) 의거배경과 현황

제국주의 일본 입장에서 김춘배 의거는 식민통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특히 1934년 3월에는 ‘만주국’의 국체가 황제국을 칭하였으며, 이를 전 세계에 선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때였다.⁶⁷⁾ 그런데 김춘배 의거가 그것도 한반도 전체를 요동치게 했던 것이다. 김춘배는 1927년 정의부 군자금 모금 때 체포되어 8년의 수형생활을 감당했다.⁶⁸⁾

선행연구에서 김춘배가 수형생활 기간 중 공산주의 사상을 수용했다고 단정했다. 특히 김춘배가 공산주의사상을 수요하고 있었다고 하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다.⁶⁹⁾ 그 이유로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 자본과 토지를 나라가 소유하고 빈부의 격차를 없애 평등하게 산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고 했다. 당시 일반적인 인식론이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김춘배가 공산당에 입당하려면 중국공산당이어야 했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경성감옥에서 수형생활 중 공산주의 사상을 접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제4차 간도공산당 사건의 핵심이었던 김근과의 만남을 지적하고 있다.⁷⁰⁾

김춘배의 의거 배경과 동기는 분명했다. 그는 정의부 모연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무려 8년 가까이 수형생활을 했으며, 형기를 마친 이후에도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1934년이라는 시대상황 역시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춘배는 공판과정에서 재판장의 “군자금을 모금하여 공산당에서 추진하는 공산주의 부락을 만들고 장차 공산국을 이루려는 행동을 하였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예”라고 답변하였다.⁷¹⁾ 이러한 사실을 단순하게 판단하면 김춘배의 군자금 모금 활동의 동기가 공산주의 마을 건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김춘배는 군자금 모금 이후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와 연결 고리를 찾으려고 했던 것은

67)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출판사, 2007, 29쪽.

68) 『동아일보』, 1928년 1월 31일, 「정의부원 공판」.

69) 황수근, 앞의 글, 11쪽.

70) 『조선중앙일보』 1934년 11월 21일, 사실전부를 시인. 1930년 5월, 북간도 지역의 한인들은 중국공산당 연변당부의 지도하에 ‘붉은 5월 투쟁’을 전개하였다. 김근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경성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

71) 『조선중앙일보』, 1934년 11월 21일, 「사실전부를 시인 김춘배의 공판 상보」.

아닐까. 왜냐하면 정의부원들은 1929년 국민부를 거쳐 만주국 시기 조선혁명당으로 재편되었다. 그 상징적인 인물이 양세봉이었다. 따라서 제국주의 일본 당국의 국내 및 만주지역 공산당의 활동에 대한 심리적 차단을 위해서 김춘배의 의거 역시 ‘공산당’ 활동으로 몰고 간 경향이 있다.⁷²⁾ 『조선일보』 1934년 11월 2일 기사에서는 김춘배가 총기를 탈취한 이유로 “만주 정의부로 갈 터인데 총기를 많이 흠치었다고 하면 부하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라고 했다.⁷³⁾

김춘배는 1934년 5월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옥하였다. 그리고 바로 아내 전명숙과 장남 종수를 만나기 위해 함남 북청군 신창에 거주하고 있던 친형 성배를 찾았다.⁷⁴⁾ 그리고 옥중에서 배운 재봉기술을 활용하여 신창에 있는 谷川양복점에 취업하였다. 이때의 거주지는 양복점 주인 김윤숙의 집이었다.

김춘배는 감옥에서 만난 김선학의 장호원 권총사건을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다.⁷⁵⁾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는 김선학의 장호원 권총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김춘배의 의거는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은 전대미문 사건으로 규정되었다.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김선학 의거는 7일 만에 종결되었지만, 김춘배의 경우에는 무려 20일 가까이 여러 겹의 포위망을 조롱하였다고 판단했다.⁷⁶⁾

김춘배는 군자금 모금하기 위해 처음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여러 차례 시험을 통해서 합리적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⁷⁷⁾ 다음 단계로 권총을 사용하는 군자금 모금 계획을 세웠다. 무기

72)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도 김춘배가 ‘소비에트’를 동경하고 있다고 묘사하였다. 그러면서도 김춘배는 민족주의자로 평가하였다(『경무회보』 343, 「괴도 김춘배」).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평가이다. 『동아일보』, 1934년 11월 20일, 김춘배가 공판에서 군자금 3만원을 모집하여 공산촌을 건설하려고 했음을 전했다.

73) 『조선일보』, 1934년 11월 2일, 「신창권총사건 김춘배 등을 송국」.

74) 『경무회보』 343, 「괴도 김춘배」.

75) 김선학의 ‘장호원 의거’는 1930년 12월 8일 새벽 1시경 이천군 장호원 경찰주재소 창고를 부수고 장총과 실탄을 탈취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 김선학 의거 역시 그가 체포될 때까지 보도 통제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1930년 12월 14일 오후 3시 김선학이 청주 부근에서 체포되어서야 언론에서 이 사실을 다루었다(『동아일보』 1930년 12월 16일, 「장호원총검범인은 혈성결사대 김선학」. 김선학 역시 권총을 이용하여 군자금 모금을 실행하였다. 그는 12년형을 선고받았다(『매일신보』, 1931년 2월 6일, 「사회를 소란시킨 죄 큰 즉 남자답게 복역하겠소」. 김춘배는 ‘북청권총 의거’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 모두 자신을 희생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실행한 의거였지만, 제국주의 일제가 바라보는 사건의 경중은 북청권총의거가 더 컸던 것 같다.

76) 이원규, 『암야의 총소리』 참조.

77) 『경무회보』 343호, 괴도 김춘배. 표백제와 알콜을 배합하여 마취제를 만들어서 군자금 모금을 실행하려고도 했다는 것이다(『조선중앙일보』 1934년 11월 21일).

고가 있는 신창주재소가 무기 탈취대상이었다.⁷⁸⁾ 북청군 신창면 신창주재소는 그의 형 성배가 거주했던 곳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김춘배가 서대문형무소에서 만기 출소한 때가 1934년 5월 12일이며 이 거사를 시행한 일자가 그해 10월 3일이다. 최소 4개월 이상 치밀하게 고민하고 세웠던 군자금 모금 계획의 첫 단계이다.

1934년 10월 2일 깊은 밤 김춘배는 아내에게 북간도에 간다는 말을 남기고 신창주재소에 보관되어 있는 무기를 탈취하려고 집을 나섰다. 그는 같은 날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사이에 신창주재소의 담을 넘고 사무소안의 병기창고의 문을 열고 38식기병총 5정, 단총식보병총 1정 26식 권총 2정, 기병총실탄 600발, 권총 실탄 100발, 권총케이스 1개를 탈취하였다.⁷⁹⁾ 그리고 신창교회 창고에 은닉하였다.⁸⁰⁾ 신창주재소에서는 무기 분실사고의 엄중함을 바로 북청경찰서에 보고하였다. 하지만 탈취자의 행방은 묘연하였다. 김춘배는 이때부터 경찰의 추적을 뿌리치며 북청 일대는 물론 전국적으로 군자금 모금 사실을 알리기 시작하였다.⁸¹⁾ 제국주의 일본이 ‘전대미문’ 사건으로 지칭했던 김춘배의 19일간의 행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북청 권총 의거 행적

일시	활동장소	활동내용	관련인물	비고
10.2/23시~3/02	신창주재소	장총, 권총, 탄환 등 무기 탈취		당일 주재소에서는 감지하지 못함
10.4/22시	양화면 후호리	어업조합에 권총을 들고 군자금 90원을 모금		호만포리 방면으로 이동(신창주재소에서 55리) ⁸²⁾
10.6/14시	양화면 신호리	낮에 수수밭에서 숨어 있음		신포면장 여식이 발견 신고 권총 실탄 5발을 유기함

78) 신창주재소는 동쪽으로 경사 진 산 중턱에서 항구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부식되어 기울어진 가옥으로 서쪽 토담은 안쪽이 7척 높이였고, 도로를 따라 바깥쪽으로 불과 3척이라서 주재소 안을 밖에서도 볼 수 있었다. 들어가는 편이지만 나가는 어려웠다. 이러한 점은 김춘배 의거 이후 신창주재소의 위치에 관한 경무국의 진단이었다(『경무회보』 343, 괴도 김춘배). 또한 김춘배는 숙직실이 없다는 점도 미리 파악한 것 같다.

79) 『매일신보』 1934년 10월 22일, 『후호리어조에 출현 현금 90원 탈취 신창사건 후 제2의 범행』

80) 교회 창고는 1년에 크리스마스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관이 비교적 용이하고 발각될 염려가 적었다고 김춘배는 판단하였다(『동아일보』 참조)

81) 조선총독부에서는 이 의거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제하였다. 따라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는 1934년 10월 20일이 되어서야 김춘배 의거를 알 수 있었다.

82) 함경북도 경찰부에서 총동원되어 수사망을 좁혔으며, 도보안과장 崔卓의 총지휘하에

일시	활동장소	활동내용	관련인물	비고
10.7/04시 20분	신포면 부창리	경계하는 순사와 충돌, 권총 두자를 꺼내들고 두발을 발사. 자위단원 모자를 탈취		
10.7/17시 20분	양화면 신호리	최원순 집에서 38식 탄약 260발 발견		
10.7/	신포면 부창리	경찰, 자위단원과 충돌	안천순사	
10.08		경찰은 김춘배의 행적을 찾지 못함		
10.9/02시 30분	양화면 동리	양화면 동리 면사무소 뒤쪽 철도 교차점에서 순사와 조우		후호리로 이동
10.10/05시30분 ~07		의호리역에서 사복경찰과 조우, 총을 발사하여 김윤현 총상, 羅興里로 이동	순사 김윤현, 순사 富田	부근 산속으로 이동, 富田순사가 추격하였지만 실패. 권총 탄환 64발과 주먹밥을 놓고 감
10.11/04	俗厚面 梅梧里	매오리에 출현, 경찰경계망을 피함		후창면 나호리로 이동
10.11/	淸海面 昇坪里	불심건문 걸러 李宗方을 습격	구장 이종방	아침밥을 칭해 먹음
10.11/	신창리	부인과 아들을 만난 후 이동		
10.12/01시경	덕음리	덕음리로 이동하여 임성주 집에 출현	林成柱 ⁸³⁾	
10.13/02시 10분	거산면 하세동리	경찰관과 조우하여 교전함. 목하부장 부상당함	木下순사 부장	신창면 만춘리 방면으로 이동
10.19/야간	신창역	신창역장 김형로 집에서 군자금으로 현금 240원 수령	김형로	

*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경무회보』 343, 344, 345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조선총독부 경찰들은 10월 3일부터 김춘배 의사를 체포하기 위해 특별수사대를 편성하였다. 木下 순사부장과 市原 부대, 그리고 자위단원들로 구성된 수사대였다. 이들은 북청군 남부 지역인 신창면, 신포면 등을 철저히 수색하였

수사본부를 신창주재소에 두고 경찰대를 수륙 양방면으로 나누어 16반의 돌격대로 맹렬히 수사를 계속하였다.(『조선중앙일보』 1934년 10월 22일 호외).

83) 『조선중앙일보』 기사는 경무회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신문에는 김태근이라는 청년과 배달부 김만복을 깨워서 만두집에 들어가 식사를 했다고 한다.

다. 특히 항구부터 산간(岩山)지역까지 김춘배가 숨어 있을만한 곳이면 모두 수색범위로 설정하여 수색을 시행하였다. 수사대는 산간의 독립가옥과 인가를 수색하거나 음식 도난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더 썼다. 또한 수색지역의 재향군인, 소방대원 청년단원, 치수공무원 등까지 동원하였다.⁸⁴⁾ 최소 3일에서 최대 5일까지 계속된 수색은 수사대원들을 지치게 하였으며, 김춘배 의사의 행적은 더욱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10월 13일 수색대 책임자였던 木下 순사부장은 김춘배와 조우하였지만 결국 부상당하고 말았다.⁸⁵⁾ 그 이후 그는 거산령 연대봉 사찰에서 기거하였다. 그곳까지 ‘북청의거’ 소식이 미치지 못한 이유도 있고, 또한 어려운 사람에게 거처할 곳을 내주는 사찰의 특성을 잘 활용한 것 같다.⁸⁶⁾

10월 19일 고향인 전북 전주(현 완주)로 가서 군자금 모금할 계획을 세운 후 신창역장 김형로 집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군자금으로 240원을 수령하였다.⁸⁷⁾ 그리고 김춘배는 신창역장 부인을 앞세워서 조선총독부 경찰의 포위망을 벗어나려고 했다. 1934년 10월 20일 오전의 일이다.

2) 체포와 재판

김춘배는 1934년 10월 20일 오전 8시 49분 신창역에서 경성행 기차를 탔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김춘배 의사 체포 사실은 언론의 보도 통제가 풀린 23일경에 각 신문사에 기사화되었다. 『매일신보』의 김춘배 체포 기사는 다음과 같다.

(전락)범인은 20일 아침에 신창역에 다시 나타나 역에서 현금과 차표 역장의 집에서 의복 등을 강탈한 위에 역장의 처까지 동반하고 경성으로 오려든 것을 환성 운송 점원 김희철 군의 신고로 북청서 어 순사와 고원서 본고 흥남서 춘천 양 순사가 차안에서 격투 끝에 체포한 것이어서⁸⁸⁾ 범인을 체포한 것은 참으로 흠쾌를 마지않은 바

84) 加藤伯嶺, 「대도 김춘배」, 『경무휘보』 345호, 72~73쪽.

85) 『조선중앙일보』 1934년 10월 23일, 「함남일대에 동출서물하든 권총범 김상배 마침내 피축」.

86) 이원규, 『암야의 총소리』, 59쪽.

87) 『조선일보』 1934년 10월 22일 호외, 「범인탈주일지」.

88) 김춘배는 20일 새벽 신창역장 金炯魯씨 집에 들어가 권총으로 위협하고 현금을 내라고 하자 마침 가진 것이 없다하여 그러면 역으로 가자하여 역장의 부인을 안내로 역에

이다. 더욱이 목하 농촌은 바쁜 이때에 군내 각 재향군인, 소방조원, 청년단원, 자위단원, 치수공사관계자 등이 연일 경찰과 연락하여 협력하여 준 것은 참으로 감사히 생각하는 바이다. 최후로 금회 사건 발생은 우리 경찰계에 봉직하는 자에게 유형, 무형으로 기타의 귀중한 교훈이 되어 함남뿐만 아니라 전 조선에서 교훈 삼기를 바란다.⁸⁹⁾

김춘배를 체포한 후 경찰은 당시 경찰건과 주재소를 지키는 개의 존재의 부재를 부각시켰다. 그만큼 김춘배의 활동이 기민하면서 신출귀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를 체포했던 경찰은 함경남도 경찰부장의 담화를 통해 이 의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최초에 이쪽 수사대에서 중대한 실책을 하였으므로 지금에 체포했다고 하자 대수롭지 아니하나, 하여튼 권총을 가지고 어디서 무슨 행동을 할지 몰라서 대단히 불안을 주었던 것이다. 연인원 몇 만인에 달하고 지방민의 협력도 많이 입었고, 불면불휴 노력하여 어쨌든 범인을 체포하였으니 기쁜 일이다. 범인도 오랫동안 도주하여 다니었으므로 발병도 나올 것이며, 지난 13일에는 거의 불면불휴이었으므로 극도로 쇠약해져 그 진력이 다했던 모양 같다. 범인을 체포하도록 노력한 김희철이나 기타 일반 민중의 응원 등에 대해서는 기회 있는 대로 표창을 하려고 생각한다. 이번 수사에서 특히 느낀 것은 경찰건과 주재소에 지키는 개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낫다.⁹⁰⁾

이 기사에서는 신창예배당의 총기를 숨겼다는 사실과 사진을 게재하였다. 특히 체포된 김춘배를 전면에 꿰어앉히고 뒤에 魚允龍 순사, 一色 북청서장, 高原署 本告 순사, 咸南署 村田 순사가 기념촬영을 하였다. 이렇듯 경찰은 김

나타나 표판 돈 2백70원을 빼앗고 그 길로 부인을 앞세우고 동 부인처럼 꾸미고 같이 오전 8시45분 경성행 열차에 몸을 실어 신북청으로 향하는 도중 동 45분에 신창과 신북청간 차중에서 이동 경찰의 손에 피검되었다. 권총 두 자루를 빼앗고 검거범인을 맡은 경관대는 즉시 북청경찰서로 송치하였는데 함남 경찰부에서는 경관대 수뇌부가 북청경찰서로 급행하였다(『동아일보』 1934년 10월 22일자, 호외).

89) 『매일신보』 1934년 10월 23일, 「체포된 범인 김춘배」.

90) 『매일신보』 1934년 10월 23일, 「체포된 범인 김춘배」. 경찰건 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김춘배 사건의 반향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춘배 의사의 체포 사실과 사진을 언론에 게재하면서 ‘독립운동가’의 초라한 이미지를 확산시키려고 했다.

체포된 김춘배는 약 10일간 북청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11월 1일 ‘절도, 불법감금, 살인미수’ 등으로 함흥검사국에 호송되었으며, 검사의 심문을 받은 즉시 함흥형무소에 수용되었다.⁹¹⁾ 김춘배의 체포에 전력을 기울인 이유로는 먼저 의거 자체가 ‘전대미문’이라는 일제의 표현처럼 식민통치에 위협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 왕족이었던 東伏見宮 大妃가 함경남도를 방문하였기 때문이었다.⁹²⁾ 동북건국대비는 일본 애국부인회 총재 자격으로 1934년 9월 22일 애국부인회 조선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 도착하였다.⁹³⁾ 그는 약 한 달간 국내에 머물면서 조선애국부인회 지회를 방문하였으며, 김춘배의 군자금 모금 활동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크게 신경을 썼던 것이다.

김춘배는 11월 1일 함흥형무소에 수용된 후 11월 5일까지 검사에게 취조를 받았으며, 함흥법원 공판에 회부되었다.⁹⁴⁾ 김춘배의 제1차 공판은 11월 19일 오전 10시 40분부터 함흥지방법원 대법정에서 개정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에 일찍부터 방청객이 몰려 법정 안이 크게 혼잡하였으며, 법정 안의 방청객은 2백 여 명이였다. 주심 판사는 함흥법원 米田 재판장이었고 입회검사는 米原 검사이었다. 그리고 배석 판사는 閔, 三宅 판사였고, 변호사는 채용묵이었다.⁹⁵⁾ 신문은 먼저 “피고의 본명은 金吉童이라 하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가정에서의 기독교 신앙 여부, 친형 김성태의 근황 등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재산 정도 및 김상배라는 이명 등도 질의하였다. 다음은 재판장과의 질의 내용이다.

- 재판장 : 피고가 공산주의사상을 갖게 된 계기는 어느 때부터인가
- 답 : 전과로 경성형무소에서 복역하는 등 한간 방안에서 복역하고 있던 간도공산당 관계자 김귀 등에게서 선전을 받은 것이요.
- 재판장 : 군자금을 모금하여 공산당에서 추진하는 공산주의 부락

91) 『매일신보』 1934년 11월 2일, 「신창총기범인 김춘배 송국」.

92) 『매일신보』 1934년 10월 23일, 「체포된 범인 김춘배」.

93) 『매일신보』 1934년 9월 23일, 「동북건국대비전하 下關發 御渡釜」.

94) 『조선중앙일보』 1934년 11월 8일, 「신창권총범 오일공판에 회부, 불원에 공판을 개정」.

95) 채용묵은 조선총독부 관련 인사이다. 제대로 된 변호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을 만들고 장차 공산국을 이루려는 행동을 하였는가?

- 답 : 네
- 재 : 얼마의 금액이면 될 것이라고 보았는가
- 답 : 약 3만원 가량을 목표로 조달하려고 했다
- 재 : 범행 전일에 피고의 집 뒤뜰에서 마취약을 제작하였다는 데 사실인가
- 답 : 그런 사실이 있소
- 재 : 무슨 목적으로 그리하였는가
- 답 : 금번 자금 조달을 이 마취제로서 실행하려고 한 것이요.
- 재 : 권총에 탄환까지 몸에 지니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살해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는가
- 답 : 절대로 그럴 것이 아니요. 다만 자금을 들여서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소.
- 재 : 의호역에서 김 순사에게 발사한 것은 그 순사를 그 즉석에서 살해하려고 발사한 것이 아닌가
- 답 : 전연 그렇지 않소. 그것은 내 신변이 위협하기에 도주하려는 수단이었소.⁹⁶⁾

그리하여 그날 밤 제약하던 원료는 무엇이며, 방법은 어떻게 하였느냐? 등을 자세히 심문하고 계속하여 다음 2일 밤 9시경 신창주재소에 들러 총기를 탈취했던 경로, 양화에 들러 어업조합을 습격한 사실 그리고 신출귀몰하던 경로를 일일이 심문하였는데 김춘배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米原 검사는 김춘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다.⁹⁷⁾ 판결언도는 26일로 결정되었다.

1934년 11월 26일 오후 1시부터 재심리를 계속한 후 이견 재판장은 김춘배에게 무기징역을 언도하였으며, 3시 40분 폐정하였다.⁹⁸⁾ 김춘배는 바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며,⁹⁹⁾ 11월 28일 함흥법원에서 이를 접수하였다.¹⁰⁰⁾ 하지만 12월 초에 경성복심 법원에서 복심 공판 예정이었지만 공소를 취하하게 되었다. 따라서 김춘배는 경성형무소에서 무기징역을 복역하게 되었다.¹⁰¹⁾

96) 『조선중앙일보』, 1934년 11월 21일, 「사실전부를 시인 김춘배의 공판 상보」.

97) 『조선중앙일보』 1934년 11월 20일, 「권총범 김춘배에 무기징역을 구형」.

98) 『조선중앙일보』 1934년 11월 27일, 「권총범 김춘배에게 무기징역을 언도」.

99) 『조선중앙일보』 1934년 11월 29일, 「26일부로 김춘배 공소」.

100) 『동아일보』 1934년 11월 30일, 「김춘배 공소」.

101) 10년 이상 장기수의 경우 경성형무소로 이감되어 복역하였다.

김춘배 재판에서의 특징은 먼저 사실관계는 일반적인 법정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김춘배 의거의 도덕적 취약성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 특히 재판장이 “피고가 신창역 장의 안해를 협박하여 동행한 것은 역장의 아내를 빼앗으려는 생각으로 그리한 것이 아닌가?” 라고 질문했는데, 이는 방청객이나 일반 대중들이 독립운동가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심문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¹⁰²⁾

둘째 일반인들에게 독립운동은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김춘배 의거를 통해서 더욱 확산시키고자 했다. 즉 독립운동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방점을 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김춘배에 대한 신문 기사 제목도 “만주에서 방랑” 등 자극적이면서 현실부정주의자 같은 모습을 연상 시키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¹⁰³⁾

셋째 조선총독부 경찰에게 독립운동가 조사 및 체포에 관한 ‘모본’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 근거로는 『경무휘보』에 3차례 연재하였으며, 내용은 김춘배 의사의 ‘북청권총의거’가 주도면밀하면서도 대담하고 무모하지만 치밀한 계획 하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향후 이러한 유형의 ‘독립운동’에 대해 김춘배 의거를 적극 참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글이다. 뿐만 아니라 이원규의 실화 소설 총소리 역시 경찰들에게 김춘배 의거의 실상을 알려 향후 다시는 전대미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6. 맺음말

1930년대 대표적 의열투쟁이며, 군자금 모금 활동이었던 김춘배 의사의 ‘북청권총의거’는 제국주의 일본의 통치정책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경고이기도 했다. 1919년 11월 만주 길림에서 의열단이 창단된 이후 동북아지역 전역에서는 의열투쟁이 전개되었으며, 군자금 모금 활동은 조직의 존립자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각 독립운동 단체는 이 활동에도 집중하였다. 1920년대 크고 작은 의열투쟁은 교과서에 수록되어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편이다. 1932년 1월 8일(이봉창 의거), 4월 29일(윤봉길 의거)의 거사는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이다. 이에 반해 1934년 10월의 김춘배의 ‘북청권총의거’는

102) 일제는 독립운동가들에게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심문 방법을 사용하였다.

103) 『조선중앙일보』 1934년 10월 22일 호외.

그 중요성에 비해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김춘배의 가계와 유년시절 및 북간도지역 디아스포라의 형상, 군자금 모금 활동의 특징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글에서는 김춘배 가문의 북간도 이주, 즉 디아스포라의 특징을 어느 정도 밝혔다고 할 수 있다. 1910년대 말 가족 이주가 지닌 의미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생활의 곤궁함을 벗어나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떠난 경우이며, 둘째는 독립운동이라는 대의로 가족 공동체가 이주한 경우인데, 김춘배 가족의 디아스포라는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로는 김춘배 가문이 누대에 축적된 재산도 있으며, 살림이 풍족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생활의 궁핍으로 이주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김춘배 가문이 북간도 연길현으로 이주한 것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춘배는 1918년 13세에 북간도로 이주하였다. 김춘배 가문은 먼저 기독교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계열의 학교도 설립하였으며, 그 학교 교장으로 김춘배의 큰 아버지가 활동하였다. 제국주의 일본이 파악한 정보에도 교사와 학생들의 반일적 색채가 강했다고 한 점은 북간도 이주의 원인과 연동해서 볼 때 독립운동의 목적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그의 가문은 이주 후에 북간도 지역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였다. 이것은 김춘배가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민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대부분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대표적으로 명동학교의 송몽규, 윤동주, 나운규 등이 잘 알려져 있다. 김춘배 역시 민족교육기관에서 수학한 공통점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립운동의 전면에 나섰다.

김춘배는 1920년대 만주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단체인 정의부에 가입하였다. 그의 나이 21세 때의 일이다. 그리고 김춘배는 바로 정의부 연길현 모연대원으로 북간도지역의 대표적 친일단체인 ‘鮮人親睦契’의 부계장이었던 이희준에게 군자금을 모금하였으며, 이것이 천보산 일본영사경찰에 감지되어 체포되었던 것이다. 선인친목계의 고문이 바로 용정조선인회 회장을 지냈던 이희덕이었다. 이처럼 김춘배는 북간도 친일부호들에게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일반 이주민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고려한 군자금 모금행위였다. 그리고 군자금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하여 강제 징수가 아니라 자발적 모금의 형태를 유지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1934년 국내의 10대 사건이었던 김춘배의 ‘북청권총의거’는 단순한 무기탈취와 군자금 모금 사건이 아니었다. 그 이유로는 정의부 군자금

모금과 체포, 출옥 이후 5개월 동안 치밀하게 군자금 모금을 준비했다는 사실이다. 8년 감옥생활 이후 다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김춘배는 ‘초인’적 의지를 발휘하였다. ‘북청권총의거’에 대한 반항은 매우 컸다. 제국주의 일본은 1934년이 바로 만주국이 황제국임을 선포한 해이며, 선만 일체화의 현실적 구현이 표면화되던 시기에 발생했던 ‘전대미문’ 사건으로 북청권총의거를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하여 독립운동가의 이미지를 약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연일 언론(당시 거의 모든 신문)에 김춘배의 정상적이지 못한 이상주의자이자 가장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김춘배 실화 소설 『암야의 총소리』, 『경무휘보』에 『괴도 김춘배』 등이 연이어 나오면서 조선총독부는 경찰들에게도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김춘배의 가문과 ‘북청권총의거’는 암울했던 1930년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통치자들에 대한 경고이자 민족적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운 거사였다.

논문접수일: 2023. 11. 07. / 심사개시일: 2023. 11. 26. / 게재확정일: 2023. 12. 15.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경무회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매일신보』
李元珪, 1934, 『暗夜의 충소리』, 大成書林.
安井誠一郎, 1934, 『滿洲における朝鮮人問題』, 『社會事業講習講演錄』, 朝鮮總督府社會事業課.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8, 『間島事情』.
外務省警察史, 1989, 『間島地域韓民族鬪爭史』 권 1, 영인본: 고려서림.
『間島關係』(開放及調査) 권 1.
川口忠 編, 1932, 『間島琿春北鮮及東海岸地方行脚記』, 大連小林又七支店.
金正明, 1967, 『朝鮮獨立運動』 5, 原書房.
牛丸潤亮, 1928, 『最近間島事情』.
淸津地方法院第1審判決抄本, 1927, 京城地方法院.
『日本外交史料館文書』 Reel 32(38630, MF 05028).
宇垣一成, 1968, 『宇垣一成日記』 1, みすず書房.
金正柱, 1971, 『朝鮮統治史料』 7, 東京: 韓國史料研究院.
삼례제일교회, 연도미상, 『삼례교회사』.

2. 저서

- 김주용, 김태국, 이홍석, 2022, 『만주지역 조선인 지배정책』, 동북아역사재단.
채영국, 2007, 『1920년대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독립기념관.

3. 논문

- 황수근, 2017, 『김춘배의 군자금 모금 활동-함남권총 의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김주용, 2021, 『1920년 간도 한인(조선인) 제노사이드에 동원된 한인 경찰: 순응, 협치, 제국의 대변자』, 『지방사와 지방문화』 24권 2호, 31-64쪽.

- 김태국, 2001, 『만주지역 조선인민회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박영석, 1991, 「한국독립운동의 방략과 평가」, 『한민족독립운동사』 10, 국사편찬위원회.
- 성주현, 2007, 「제2차 동학혁명과 삼례기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0호, 5-38쪽.
- 채영국, 1998, 「정의부의 항일군정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2호.
- 황민호, 2015, 「국내언론에 나타난 재만 정의부의 대민활동과 항일무장투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2호, 91-128쪽.

<Abstract>

The Life and Independence Movement of Kim Chun-bae, an Independence Activist from Samrye, Jeollabuk-do

Kim joo yong*

Kim Chun-bae, an independence activist from Samrye, Wanju-gun, Jeollabuk-do, has been a little known figure. However, the so-called "Bukcheong Pistol Incident" he implemented in 1934 was a special independence movement that was selected as the "Top 10 News of the Year" at the Dong-A Ilbo in that year. This article examined Kim Chun-bae's life divided into family migration history (diaspora) and independence movement participation period. It can be said that Kim Chun-bae's participation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stems from family history. As a family of devout Christianity, his family moved to Manchuria, planning a new migrant community, leaving their lives in Korea behind. Kim Chun-bae, who received a strong national education, was arrested by the Imperial Japanese Police while conducting a military fundraising campaign at the Justice Ministry and lived in prison for five years. After that, without being frustrated, he carried out "the takeover of the armory of Bukcheong Police Station" again. In the course of Kim Chun-bae's arrest and trial,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also created public opinion to drive the legitimate actions of independence activists into shameless acts. Undaunted by this insulting attitude of Japanese imperialism, Kim Chun-bae was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and ended his life in prison. I hope it will be a small grain of wheat that summons a little-known independence activist to the surface of history.

Key Words : Kim Chun-bae, Bukgando, Justice Ministry, Military Fundraising, 'The righteousness of Bukcheong a pistol'

* Associate professor at the Korea-China Relations Research Institute of Wonkwang University